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2020년 가족과 함께드리는 가정예배



하는 순간에는 심히 고통스럽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열매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따라서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즐거울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질 것이며 그 끝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신앙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인생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경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 송 200장(통일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 같이**

- 1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 2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 3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끌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추 모 **가 장**

가족소식 **인 도 자**

가족기도 감사를 나누고 기도로 자녀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폐 회 주기도문 **다 같이**



2020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명절 가정에배 순서지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디도서 1:14 **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 송 314장(통일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다 같이**

-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엮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2 이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성경봉독 히브리서 12:1~11 (신약 366p) **인도자**

-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 나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도자**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포악한 로마 황제의 위협을 피해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는 핍박 속에 다시 유대교 돌아가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권면은 박해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지라도, 핍박이 거셀지라도 우리 가정은 언제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현재 유대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미 포기한 자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갈등하고 있던 그 시절,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는 것이었고 창과 칼에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은 침 뱀음과 모욕 속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본문 2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 어떠한 모욕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우리는 오늘 현실에 닥쳐진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십시오. 고난과 핍박이 엄습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 끝에 만나게 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고난을 겪어야